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1월 미 기업 일자리 늘었다...18만3천개
- WSJ: 일자리 그만두는 미국인 줄었다
- Bloomberg: 12월 미 무역적자 크게 증가...관세 부과 예고에

[미국 금융]

- CNBC: 연준 부의장 “연준 금리 정책 신중하면 좋겠다”
- Bloomberg: 매그니피센트 7의 낮은 성장에 S&P500 랠리 저조

[미 행정부]

- NYT: 미국 기업들, 관세 부과로 ‘고통’

[물류]

- WSJ: 연방 우체국 “중국 우편물 수령 재개”

[주택]

- Bloomberg: 트럼프 관세, 미 주택 건축비 2만9천불 올릴 수도
- CNBC: 미 모기지 수요 감소

[인공지능]

- WSJ: 미 기업들, AI 투자 경쟁 여전해
- CNNBusiness: 구글 “무기나 감시에도 AI 사용하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국산 명품 브랜드 키운다
- WSJ: 디즈니, 디즈니+로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
- WSJ: 닛산과 혼다 합작회사 협상 결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private payrolls growth picks up in January

1월 미 기업 일자리 늘었다...18만3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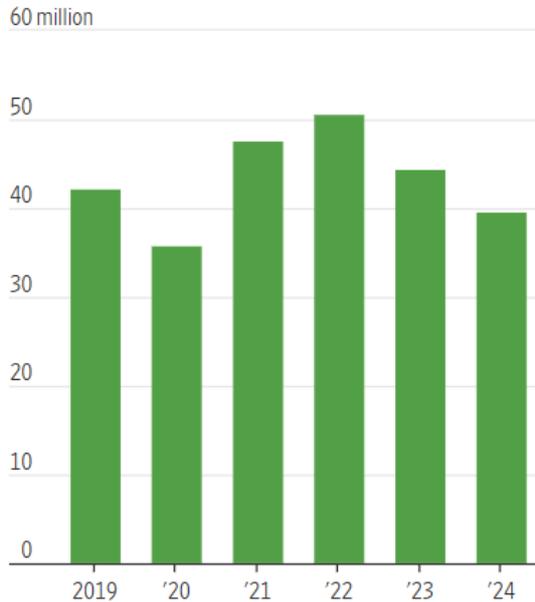
- 1월 미 기업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ADP 미 고용 보고서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12월에는 17만6천개로 수정 상향 조정된 후에 1월 들어 18만3천개로 증가했다. 전문가 예상 증가 수치는 15만개였다.
- 이번 주 금요일에는 보다 종합적인 연방 노동청 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Reuters 기사

WSJ: Fewer Americans Are Quitting Their Jobs
일자리 그만두는 미국인 줄었다

-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갈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직률은 감소했다.
- 신규 채용 비율은 작년에 3.5%로 줄어들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약 4.4%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 회사들은 고용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는 해고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다.

Annual U.S. job quits



Source: Department of Labor

WSJ 기사

Bloomberg: US Trade Gap Ballooned Ahead of Trump Term, Tariff Promises

12월 미 무역적자 크게 증가...관세 부과 예고에

- 작년 12월 미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예고와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25% 증가한 984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총 적자는 9천1백84억 달러로, 1960년 집계 시작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Fed Vice Chair Jefferson advocates remaining cautious on rates as policy drama unfolds

연준 부의장 “연준 금리 정책 신중하면 좋겠다”

-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은 화요일에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은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그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인플레이가 연준의 2% 목표로 향하는 길이 고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그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연준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즉,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다른 관리들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Magnificent Seven’s Slowing Growth Threatens S&P 500 Rally

매그니피센트 7의 낮은 성장에 S&P500 랠리 저조

- 지난주 중국 DeepSeek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의 시총 중 5천억 달러가 증발했다. 더욱이 어제 구글의 실망스러운 실적은 관련 자본 투자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 구글은 클라우드 부문을 AI 붐의 하나로 간주했는데, 4분기 해당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구글 주식은 1년여 동안 가장 낮은 수익률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중 5개 기업을 이미 실적을 발표했으며, 아마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는 이달 하반기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S&P500은 0.16%, 나스닥은 0.6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 행정부]

NYT: As Trump's Trade War Unfolds, American Companies Brace for Pain
미국 기업들, 관세 부과로 '고통'

- 미국에서 제조·생산하려는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내해야 한다. 또한 부품과 원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 켄터키에 소재한 미국 기업 CRG Automation의 경우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이 회사는 제품을 제조하는 로봇 기계는 일본에서, 전자 제어 장치는 중국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류는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다.
- 다행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일시 유예되었지만, 중국 관세는 시행되고 있다.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이 회사는 제품 가격 상승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
- 미국 기업들은 부품과 원자재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 국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철강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NYT 기사

[물류]

WSJ: U.S. Postal Service Resumes Shipments of China Parcels
연방 우체국 “중국 우편물 수령 재개”

- 트럼프의 중국 관세 정책 시행으로 연방 우체국(USPS)은 중국과 홍콩 우편물 패키지 배달이 일시 중단했었다.
- 그리고 오늘 수요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우편물 소포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연방 우체국은 우편 패키지 서비스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 관세국 경보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Trump Tariffs Risk \$29,000 Rise in US Home Building Costs

트럼프 관세, 미 주택 건축비 2만9천불 올릴 수도

- 위스콘신주 주택 건설업자 David Belman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주택 건설 비용이 평균 한채당 최대 2만9천 달러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 따르면 미국 목재와 석고 수입의 70%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된다.
- 이미 공급 부족과 높은 금리로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는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이미 관세를 대비하고 있다.
- 임업 컨설턴트 Russ Taylor는 일부 캐나다 목재 공장이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25% 인상하겠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Homebuyer mortgage demand drops further, a troubling sign for the spring market 미 모기지 수요 감소

- 봄철 주택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모기지 은행 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4%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 대출 잔액(76만6천550달러 이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7.02%에서 6.97%로 하락했다. 계약금 20% 대출의 경우 모기지율이 0.63%에서 0.64%로 상승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에 비해 39% 감소했다. 주택 판매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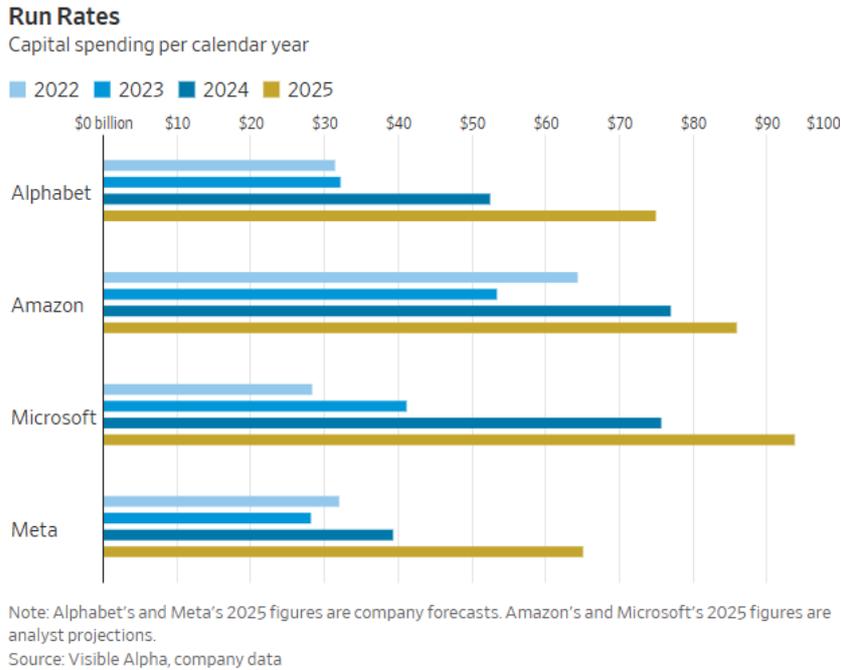
CNBC 기사

[인공지능]

WSJ: The AI Spending Race Is Still On as Google Antes Up 미 기업들, AI 투자 경쟁 여전해

- 구글이 어제 화요일 4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7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25억 달러 지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월스트리트 예상 매출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 및 디바이스 사업의 매출 성장이 약세였으며, 알파벳 4분기 총매출은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966억 달러에 약간 못 미쳤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2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부진을 기록한 것이다.
- 이에 구글이 AI 설비 투자 등을 늘리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Visible Alpha의 예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매출의 30%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구글도 올해 투자를 늘리면서 AI 지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CNNBusiness: Google erases promise not to use AI technology for weapons or surveillance

구글 “무기나 감시에도 AI 사용하겠다”

- 구글의 새로운 AI 윤리 정책에서 무기나 감시에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2022년 ChatGPT 출시 이후 AI 기술은 급격히 발전했지만, AI 운영 투명성과 윤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뒤쳐져 있는 상태다.
- 구글 연구, 기술 및 사회 부문 수석 부사장 James Manyika와 구글 딥마인드 책임자 Demis Hassabis는 “AI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같은 핵심 가치에 따라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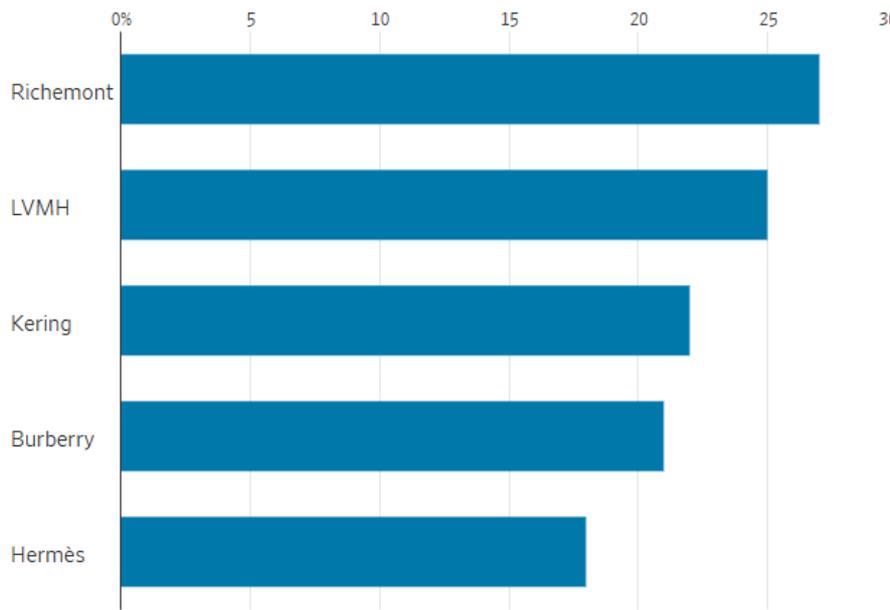
CNN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 Hot New Label for Luxury Brands to Consider: ‘Made in America’ 미국산 명품 브랜드 키운다

-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유럽에서 만들어진다. 컨설팅사 Bain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의 약 55%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며, 명품 브랜드의 독립 공장에서 생산된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에서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가격을 올려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엔 이미 오랫동안 가격을 높여 ‘바가지를 쓴다’고 느끼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 또한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 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명품 소비는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말 개선 조짐을 보였다. 이럴 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수요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 따라서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겨 관세를 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유럽보다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일부 공장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uxury brands’ sales exposure to the U.S.



Note: Richemont and Hermès data is for the Americas region
Source: Bernstein, the companies

WSJ 기사

WSJ: Disney to Centralize Streaming Offerings Within Disney+ 디즈니, 디즈니+로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

- 작년 4분기 디즈니 스트리밍 사업은 2억9천3백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에는 1억3천8백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
- 디즈니는 디즈니+의 스포츠, 뉴스,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고 있다. 디즈니+ 금융 책임자 Hugh Johnston은 디즈니+가 디즈니와 관련된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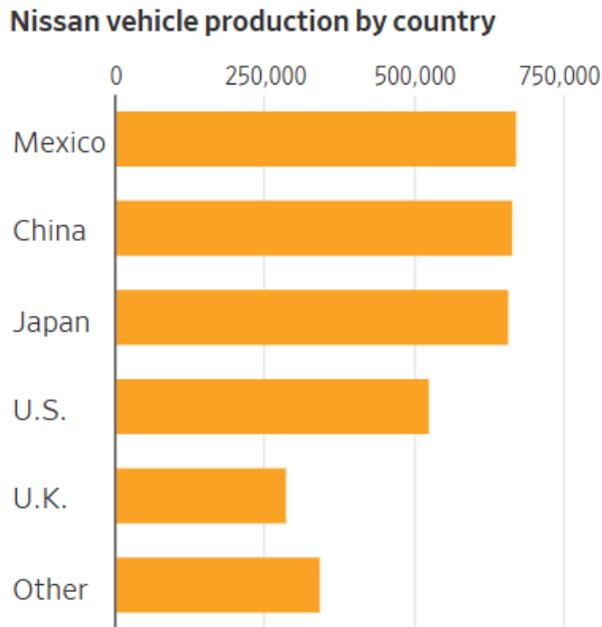
것을 연결하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즈니는 라이브 스포츠 및 TV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Hulu와 ESPN을 디즈니+에 추가해 더 많은 구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WSJ 기사

WSJ: Nissan to Reject Honda Deal to Create World's No. 3 Automaker
닛산과 혼다 합작회사 협상 결렬

-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닛산과 혼다의 합작회사 협상이 결렬됐다.
- 관계자에 따르면 혼다가 기존의 동등한 위치가 아닌, 닛산이 혼다의 자회사가 되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닛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 두 회사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2월 중순 협상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로 닛산 주가는 4.9% 하락했고, 혼다 주가는 8.2%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닛산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닛산은 현재 미국과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닛산의 시장 가치는 혼다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오사카 증권 수석 전략가 마츠모토 후미오는 “닛산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순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Source: the company

WSJ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무역전쟁 우려에도 협상 기대에 상승...나스닥 1.4%↑
멕시코 이어 中도 대화 해결 전망...AI업체 팔란티어 24% 폭등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금값은 최고치 경신...채권 금리도 하락**

미국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부과와 중국의 맞대응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며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13포인트 (0.30%) 오른 44,556.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31포인트(0.72%) 오른 6,037.8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62.06포인트(1.35%) 오른 19,654.02에 각각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